

몽·중, 몽·러 경제협력 현황

Lkhagvadorj 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1. 몽골의 주요 대외경제정책
2. 몽골 중국 경제협력 현황
3. 몽골 러시아 경제협력 현황
4. 몽·중, 몽·러 경제협력 비교연구

- 요약 -

본고는 최근 몽골과 중국, 몽골과 러시아간 경제협력현황을 살펴보고 양자경협의 중점내용과 특징을 논의한 다음 비교검토를 통해 차이점과 동일점을 분석하였다. 2015년 대외경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정부가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확대, 교통인프라개발과 함께 수출산업지원, 수출시장확대에 중점을 둘 것을 발표했다.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과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힘입어 몽·중 경협이 빠르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면 몽·러 경협은 교역, 투자 등 여러 측면에서 1990년 이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양국 모두의 경기하락과 유사한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운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권한 등으로 인해 경협의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대중의존도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1. 몽골의 최근 대외경제정책 동향

중국경제의 시장과 자금, 한국과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금,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자원에 힘입어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에는 교통, 물류, 에너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몽골정부는 이와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해 2010년 이후로 대외경제정책내용을 담은 몇몇 주요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필자는 이들 문서 중 2015년 12월에 몽골정부에서 발표한 '몽골 대외경제 프로그램'¹과 현 정부의 업무계획 자료인 '2016-2020 정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몽골의 대외경제정책을 요약하고자 한다.

가. 2015년 '몽골 대외경제교류 프로그램'

'몽골 대외경제 프로그램'은 몽골정부가 앞으로 추진해나갈 대외경제교류 방향과 협력사업 등을 제시한 문서로, 그 동안 몽골정부가 발표한 '산업별 국가정책'과 '2030 국가개발' 기초 중 대외부

¹ 몽골이 대외경제교류에 대한 정책문서로 본 프로그램은 2011년도에 최초로 발표하였으며, 2015년도에 대외환경의 변화와 국내정책방향을 고려해 개정된 것이다.

문에 해당된 목표사업들을 통합한 것이다. 프로그램시행의 주요 목적은 첫째, 대외시장진출과 수출시장개척, 둘째, 국내기업의 수출지향적 사업지원, 셋째, 친환경적인 청정기술의 도입과 기업경쟁력확대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증대에 있다. 각 항목별로 추진해 나갈 목표사업을 나열했는데, 첫 항목 즉 '대외시장진출과 수출시장개척' 부문에 주요 국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1> '몽골 대외경제 프로그램' 중 일부 내용

대분류	소분류	추진사업
대외시장진출과 수출시장개척	파트너 국가들과 경제교류확대	러시아와 '전략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한 중기 프로그램' 체결 중국과 체결한 '교역, 경제협력 중기 프로그램' 실행 유럽연합과의 '동반자관계 협정' 비준, 실행 몽-중-러 삼자협력 심화, 운영 메커니즘 구축 캐나다와 투자유치, 상호보호에 대한 협정서 체결 교역파트너 국가들 대상으로 수출상품진출 여건마련관련 협상추진 세계무역기구와의 무역자유화협정서 조인 중국과 에너지수출 협상추진, 체결 '제3이웃 국가' 원자재수출관련 철도운임과 우대조건에 대한 협상추진 무역, 경제특구 구축 개방적인 항공로 협상추진
	자유무역, 경제동반자협정서 체결	신흥시장 진출여건 마련 농산품교역, 관세 및 무역자유화, 수송, 세관, 검역 관련 문제로 EAEU와의 공동업무위원회 협력사업 추진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와의 자유무역협정서 체결을 위한 조사게시, 협상게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서 체결 가능성 조사 미국과 자유무역협상 지속 캐나다, 대한민국 등 기타 파트너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서 체결 문제조사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와의 협력개발
	지역경제통합과정 참여	지역 산업 및 공급체인 조인 아시아태평양 해상무역조약 가입 중양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사업범위내 경제회랑개발 이니셔티브 지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가입 추진 동아시아정상회담, 한중일 삼자협력 참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범위 협력강화 아시아유럽회담(ASEM), 상하이협력기구(SCO) 협력강화 등등
	내륙국가의 성 중화, 인프라개발	러시아와 철도화물 통과수송에 대한 정부간 협정서 체결 통과운송에 대한 몽골, 중국, 러시아 정부간 협정서 체결 몽골-러시아, 몽골-중국 국경지대 일부 항만을 국제항만으로 지정 울란바타르 철도 현대화사업 추진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 협력위원회와 협력강화 등 등

필자작성

나. '몽골 정부 2016-2020 실행계획'

2016년 총선결과로 몽골인민당이 정권에 출현하게 되었으며, 현 정부는 전 정부들의 주요 정책인 광산개발 및 교통인프라개발², 그리고 수출지향적 산업개발과 수출무역지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본 정책실행을 위해 광업분야에는 정유공장개발 등 4개 사업, 에너지개발과 관련해서는 TT 화력발전소 5개 사업, 타왕톨고이 - 가송수하이트 철도(Tavantolgoi-Gashuunsukhait), 에르데네트-오보트 (Erdenet-Ovoot) 철도 등 교통인프라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몽골 중국의 경제협력

가. 경제협력의 배경

1990년 이후 몽골과 중국간의 관계교류 발전과정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1990-2002 관계 정상화와 개발초기 단계; 둘째, 2003-2013 관계발전단계; 셋째, 2014-이후 관계심화단계이다.

- 2003-2012년 사이는 관계양성단계로, 중국과 몽골이 관계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유망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3년 후진타오가 울란바타르를 방문하면서 양국 외교관계 '몽골 중국 선린 우호 이웃 동반자 협력관계'로 격상시키고, 양국간 협력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 2011년 몽골 수. 바트볼드 국무총리의 중국방문 당시 양국정부가 외교관계수준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양국 총리들은 향후 협력강화 분야를 광산업, 에너지개발, 인프라개발, 금융분야로 설정하였고, 원유탐사와 정유 그리고 석유제품, 연료공급 관련 장기간 협력강화를 합의하였다. 바트볼드 총리는 방문 당시 '중, 러, 몽 삼국간 협력사업'들 즉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송전망 개발사업을 추진 시 몽골을 경유하도록 중국정부에 당부하였다. 반면에 중국측은 몽골의 '10만가구 주택개발사업' 참여의사를 밝혔다.
- 2013- 현재까지 관계심화단계로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몽골 방문이 양국관계가 한층 긴밀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본 방문을 통해 양국은 '전면적인 전략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중장기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2014년에 몽골정부와 중국정부가 발표한 '몽골 중국 전면적 전략동반자 협력의 중장기 계획' 중 '몽골 중국 경제통상 중기개발계획'은 2020년까지 양국정부가 추진할 경제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은 투자협력, 광물에너지협력, 교통물류협력, 금융협력, 그리고 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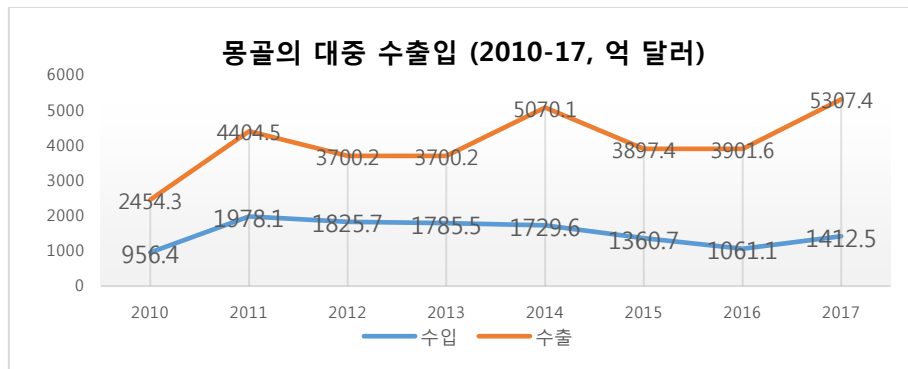
협력을 협력대상부문으로 지정하였다. 위 문서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투자협력 대상사업으로 양국정부는 투자정책과 관련 법적 환경의 개선과 관련 법규안정성 확보한다. 또한 양국간 체결된 ‘투자진흥, 보장에 대한 몽골정부와 중국정부간 협정’ 그리고 ‘이중과세방지과 탈세 행위방지 대한 몽골과 중국간 협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몽골과 중국은 광물, 에너지분야 협력과 관련해 타왕톨고이, 오유틀고이 등 대규모사업과 석탄화학사업, 그리고 원유개발사업 공동추진을 지원할 것이며, 몽골정부는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한다,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중국측이 ‘오유틀고이 광산’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몽골의 발전소플랜트건설과 대중국 에너지수출, 재생에너지분야 협력개발이 주요 협력사업으로 지정되었다.
- 양국은 교통물류협력과 관련해 중국기업의 몽골교통인프라 개발사업참여를 지원한다. 대상사업으로는 ‘울란바타르 철도 현대화사업’, 주요 국경통과지점 인프라개발, 통과운송 협정서 체결, 몽골의 중국 텐진항만 이용, 도로교통과 항공교통협력의 강화가 포함되었다.
- 교역협력을 위해 교역제도 개선, 기업의 상대국 국제입찰참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다양한 무역박람회의 공동주최와 세관 및 식품안전성, 검역당국의 교류를 확대할 것이며, 기업간 협력과 상공회의소간 협력을 지원한다. 양국간 교역증진을 위해 ‘동북아 박람회’, ‘몽·중·러 통상경제포럼’, ‘몽·중 무역박람회’ 등 개최,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준비사업 착수와 ‘자밍우드-얼렌’ 국경통과지점내 국경무역지대 건설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 금융협력사업으로 양국정부는 금융기관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정부간 통화스와프 사업 규모를 더욱 늘리기로 하였다.

나. 몽·중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

교역 현황: 몽·중 양국간 통상협력은 1990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양국간 무역규모는 2017년에 최대치인 67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몽골의 1위 무역파트너이며, 몽골의 전체 대외무역 중 63%를 점유하고 있다. 양국은 세관과 검역당국 등 정부당국간 협력, 지방정부교류확대, 무역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교역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래프-1> 몽골의 대중 수출입



출처: 몽골통계청, 대외부문통계 2017, www.1212.mn

- 2017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총 67억 달러로, 2008년 대비 2.6배,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몽골의 대중 수입액은 14억 달러로 전체 수입 중 32%, 대중 수출액은 53억 달러로 전체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이 유일하게 대중 교역에서 38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몽골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건축자재, 생활용품, 기계설비, 식품 등이다. 반면 대중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구리, 형석 등 광물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2015년 이후 수출품목 중 비광물 품목으로 말고기, 양고기 등 육류와 반가공 양털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말고기의 경우 지난 총 3800만 달러의 수출을 올렸다. 양국간 교역 통계를 살펴보면, 수출입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몽골 수출품목이 광물 자원과 원재료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 양국간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관계에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몽골의 주요 수출 품목이 비관세 장벽이 높은 농산품과 광물 등 원재료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출이 가장 큰 이슈이다. 특히 석탄 같은 경우 중국 지방정부에서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고 있고, 물류수송에 대한 중국측 잦은 운영변경으로 인해 몽골의 대중 석탄수출은 종종 차질이 생긴다. 2018년 1월과 4월 그리고 11월에 몽골 국경에서 120km 길이의 석탄운반 차량 행진이 한 달간 유지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몽골 측은 중국지방정부와의 협력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표-2>몽골의 대중 육류수출 현황

단위: 톤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고기	1857	2480	2599	12272	-
말고기	-	3857	7983.6	14392.6	26118.7

출처: 몽골통계청, 대외부문통계 2017, www.1212.mn

교역진흥조치: 몽골과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교역규모 100억 달러까지 확대할 목표를 세웠다. 교역규모 확대를 위해 무역박람회 개최, 지방정부협력강화 등을 통해 변경지역 무역교류확대를 유도하고, 세관과 검역당국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특히 비관세 장벽 제거에 힘쓰고 있다.

- 양국 정부지원으로 '몽골 중국 무역박람회'가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본 박람회는 통상 포럼, 전자상거래 등 총 20여 개의 부설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2015년 제 1차 박람회가 내몽고자치구 후허하우터에서 개최되어 몽골의 239개 기업과 중국의 800개 기업이 참여했었다면, 2017년 2차 박람회에 몽골의 420개 기업과 중국의 900개 기업이 참여했다.
- 양국간 교역 잠재력 확대를 위해 몽골, 중국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서' 체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사전공동조사작업을 착수하였다.³ 몽골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구조 개혁, 부가가치 제조업육성, 내륙항만 수용량 확대, 농산품 교역확대 등을 중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해당분야 지원에 힘쓰고 있다.⁴
- 2014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중기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몽골산 육류와 육류가공품을, 반면 몽골은 중국산 채소 등 농산품 수입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져 2016년 중국 검역당국이 몽골의 육류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점검을 실시하였다. 중국 검역당국은 2018년 말 2차 현장평가와 점검 사업을 실시하는데, 육류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작물, 사료, 유제품 제조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중국 농산품 몽골 수출을 위한 '그린통로(Green pass)'가 시스템이 2018년 가을부터 가동되었다.⁵
- 국제교통망 미개발, 몽골 제조업의 생산한계 등으로 인해 몽골의 대중 교역은 주로 내몽고 자치구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협력과 국경지대 무역특구 건설사업이 교역확대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 떠올랐다. 양국정부는 우선 '자밍우드-얼렌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중국 상무부와 몽골 행정내각부간 공동업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몽골 자밍우드에서 900헥타 부지를 개발 중이며, 중국이 6000만 달러와 몽골이 8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해 지대 하수도, 도로, 난방 등 인프라 개발은 거의 준공한 상태이다.

투자현황: 중국은 몽골의 제1위 투자국이며, 연 평균 2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다. 매해 180여개의 중국회사가 몽골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10년전과 비교할 때 4배 감소된 수치이다.

- 2017년 말 누적투자액 기준으로 중국의 대몽골 투자액은 45억 달러 (총 210억 달러), 몽골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5%에 달한다. 2013-2016년을 제외하면, 몽골의 전체 외

³ China, Mongolia to start joint feasibility study for FTA,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7-08/01/content_30320051.htm

⁴ 中国—蒙古自贸协定联合可研第一次会议成功举行, 출처: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9/20180902791379.shtml>

⁵ 中蒙启动首个农产品快速通关绿色通道, 출처: <http://tjtb.mofcom.gov.cn/article/y/aa/201809/20180902790137.shtml>

국인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은 36-41%를 유지하여 꾸준히 1위를 차지해왔다.⁶ 2013년 중국의 대몽골 투자가 3900만 달러까지 감소된 적이 있었으며, 최근 몽골의 경기불황 속에서도 투자액수는 미국달러로 2억 대를(2015년 1.9억 달러, 2016년 2.4억 달러, 2017년 2.2억 달러) 유지해 나가고 있다. .

<그래프-2>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출처: 몽골통계청, 대외부문통계 2017, www.1212.mn

- 산업별 투자현황을 보면, 중국의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가 광업(70%)에 집중되어 있다. 광산 채굴업과 광산 탐사업을 제외하면 외식업(12%), 무역업(10%), 건설업(2.3%)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0년-2017년 사이 무역과 외식업에 투자한 중국계 기업은 5044개 이다. 같은 기간 동안 몽골에 투자한 전체 기업 중 73%를 차지하는 것이다. 몽골 광물자원관리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산채굴과 탐사 개발권을 보유하는 외국계 단독 또는 합작기업 364개 회사 중 중국계 189개 회사가 273개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17년 기준 6985개의 중국기업이 몽골에 투자하였다. 2005-2008년까지 연 평균 800개 중국투자회사가 신고되었다면 2009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연 평균 350개 회사, 2013년부터 연 평균 180개 중국투자회사가 문을 열었다. 2017년에는 163개의 중국투자회사가 신규 신청하였다. 중국투자기업 수는 감소되었으나 투자액수는 평균 2억 달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금융기관으로는 중국은행 (Bank of China), 그리고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가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다.
- 중국기업의 대몽골 투자유치를 위해 몽골 국가개발국(전 몽골투자청)이 중국 내몽골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몽골 중국 투자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⁶ 몽골중앙은행, '외국인직접투자동향 2015,' 출처: www.mongolbank.mn

다. 몽·중 경제협력 주요 사업

교통인프라: 몽골과 중국이 접하는 국경에서 총 13개의 내륙항이 있다. 이중 자밍우드 내륙항만이 철도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로교통만이 수송대안이다. 몽골정부 2010년 ‘**교통개발에 관한 국가정책**’에 따르면 주요 광산지역을 몽골 중국간 내륙항을 연계하는 4개 철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철도인프라:** 몽골 국회에서 채택한 ‘2010년 철도개발 국가정책’에 따르면 중국국경과 연계되는 4개의 철도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다. 우선, 몽골의 가승소하이트 내륙항과 중국 내몽고 강츠모드 내륙항만을 연결하는 ‘**타왕톨고이-가승소하이트 철도**’ 시공사업이 착수되었고 2019년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다. 둘째, 나린소하이트-시베후릉 철도는 몽골의 시베후릉, 중국의 세케 국경지대를 몽골의 나린소하이트 탄광과 연결하는 13km 길이 철도시공 사업이며, 2018년 3/4분기에 시작했다. 해당철도가 개발될 경우 석탄수출이 150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몽골 수흐바타르 아이막 후우트 지역을 몽골의 비치트 내륙항과 중국의 얼산 내륙항을 연결하는 후우트-비치트 철도는 타당조사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2018년 4월에 몽골의 국영기업인 몽골철도공사와 중국의 Baxin Railway 사가 협력 협정서 체결하였다.⁷ 2018년 8월에 몽골정부는 ‘에르떼네트-아르츠소리’, ‘주웅바양-항기’ 두 개의 철도를 새로 건설하기로 결의하였다.⁸ ‘에르떼네트-오보트’ 철도는 몽골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는 아니지만, 몽·중·러 경제회랑철도 북부회랑에 포함된 구간이다. Aspire mining 호주투자 기업이 ‘오보트 탄광’ 개발을 위해 철도사업을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기업 Gezhouba Group Corporation International (CGGC)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철도명과 노선	국경통과지점	주요화물	진행과정
시베후릉 철도 (나린소하이트-시베후릉-세케, 45.5km)	시베후릉-세케 내륙항	석탄 (1200만톤)	몽골철도공사 51%+ ‘나린소하이트 철도’ 사(MAK, SGS, Usukh Zoos사), 타당성조사와 설계도작성 완료
타왕톨고이 철도 (타왕톨고이-가승소하이트, 267km)	가승소하이트-간츠 모드 내륙항	석탄 (1800만톤)	총 사업금 11억 중 2.8억US\$ 이미 투자됨, 몽골 정부 51% + 투자자 49%, 중국 섀화에너지 투자희망 밝힌 바 있음. 공사 50% 진행
(미정) (후우트-눔루그, 380km)	눔루그-얼산 내륙항	석탄	타당성 조사 진행 중.
(미정) (후우트-비치트 200km)	비치트-주웅가탐치 내륙항	석탄	중국의 철도계획 제3연구소 설계도 작성 중. 철도 공사를 위해 특수목적회사 설립할 예정이며, 몽골

⁷ Chinese investors bid for Khuut-Bichigt project, <http://mongolia.gogo.mn/r/161037>

⁸ 몽골철도공사 이사 인터뷰, ‘타왕톨고이-가승소하이트철도 국경접점점 문제 급히 결정해야(Тавантолгой-Гашуунсухайтын чиглэлийн хилийн холболтын цэгийг яаралтай шийдэх ёстой)’
<http://www.mongolianminingjournal.com/content/65763.shtml>

<표-3> 몽골과 중국간의 주요 철도개발사업

필자 작성

- **철도운임:** 2014년에 몽골정부와 중국정부는 '철도통과운송 협력에 관한 협정서', '몽골의 중국 국토를 통한 해양진출과 통과운송운행에 관한 협정서' 체결하였다. '본 협정에 따르면 통과 운송하는 철도화물의 경우 가송소하이트-간츠모드, 시베후릉-세케, 비칙트- 주웅 가탑츠, 숨베르-얼산 등 내륙항을 이용하면 최대 40%까지 우대조건을 적용시키는 것이 본 협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몽골기업들이 중국의 주요 항만 즉 텐진항, 칭황다오항, 다롄항, 단둥항, 잉커우항, 진저우항, 황화항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항만 이용권이라는 세관검사지대와 보세창고 이용, 환적서류 처리상 우대조건 등을 포함한 것이다.

광업분야: 몽골 광물자원관리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산채굴과 탐사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외국계 단독 또는 합작기업 364 회사 중 중국계 189개 회사가 273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기업으로는 원유채굴 업체인 '페트로 차이나 다이칭 탐사(Petro China Daiqing Tamsag)', '동셴 오일 몽골 (Dongshen oil Mongol)' 있으며, 두 회사는 유일하게 몽골에서 원유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사우스 샌드 고비(South Sand Gobi)', '차이르트 미네랄(Tsairt Mineral)', '볼드 투무르 예러 (Bold Tumor Eruu)' 등 중국 합작회사로 몽골의 100대 우수기업 순위에 포함되었다.

에너지분야: 에너지인프라분야협력은 양국협력 중 주요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분야 협력사업을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초국경 전력망 개발사업이다. 몽골 정부는 이미 2011년 몽골총리 바트볼드 중국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에너지 수출수입관련 일반협정서' 체결을 제안했다. 대중국 수출용 화력발전소 사업으로는 '시베오보 화력발전소', '텡싱 고비 화력 발전소' 등 사업을 총 투자 108 억 달러를 투입해 개발 중에 있다. 몽골 정부는 시공사업자로 중국기업을 선정하였고, 2015년부터 시공사업을 착수하였다. 둘째, 몽골의 에너지인프라개발사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참여이다. 몽골은 대규모의 투자자원이 요구되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개발에 중국의 자금투자와 기술을 활용할 뜻을 밝혀왔다. '바가노르 화력발전소' 개발사업은 중국기업이 대규모 화력발전소 개발사업으로서 몽골에 추진하고 있는 최초의 사업이다. 버룰주트 (300mw) 화력발전소는 몽골의 '보디 인터네이셔널' 사가 투자해 개발하는 사업이며, 중국 국경기업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LLC Sixth group'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표-4> 몽골과 중국의 에너지분야 주요 협력사업

발전소명과 시설용량		사업진행과정
완공	제4 화력발전소 증강사업(kw)	공사사업 준공
	암갈랑 (150mw)	시공사업 준공
진행	바가노르 (700mw)	시공/ 중국 'CNI and Pinggao'사
중	버룰주트 (300mw) 탄광개발과 발전소 건설 사업	Power China Resources, China State construction LLC

	시베오보 (9240mw)	중국기업 시공사
	텔멩 (100mw)	중국 'Henan Senyuan Electric Co. Ltd'
예정	시베오보 배급망 800km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LLC Sixth group
	송기노 고비 수자원 개발사업	중국 CNEC, Harcan engineering
	타왕톨골이 화력발전소	중국 China Shenhua

필자 작성

농업: 몽골 정부 산업화 21:100 프로그램을 추진해 농업분야 경공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본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014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몽골산 육류와 육류가공제품 등 농산품의 수출확대, 국경지대 육류가공공장 설립, 가축 병 공동대응과 관련해 양국 정부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정부당국이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선 2016년 양국 검역당국은 상호방문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현장점검사업'을 실시하고 수출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4월에 몽골 국무총리 방중을 통해, 중국지원 차관 중 7800억 위안 자금으로 '고비, 항가이, 동부, 서부지역에 각각 하나의 육류 공장과 검역지대 복합시설을 건설하기로 양국 정부는 합의하였다. 중국의 'Sinoconst 사'가 '몽골에 육류 공장과 검역지대 복합시설개발, 기술현대화 사업' 상업계약서 체결하였다.

농산품 제조업 분야에 중국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몽골의 '마흐 미트'사와 중국의 'Anhui Hua Anfen Industrial' 사간 육류가공공장 설립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몽골의 'Makhimpex' 등 여러 회사가 중국투자를 받고 있다.

앞으로 농업부문의 협력사업은 육류로 한정되지 않고, 곡물 등 타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정부간 몽골정부와 중국정부의 통상경제기술 공동위원회에서 '유채, 밀기울, 호밀 등 몽골수출업자 안정성점검, 육류와 유제품 수출업자들 현장점검사업을 중국검역당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⁹

개발협력: 중국정부는 2005년 이후 몽골에게 총 18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과 1991-2017년 사이 총 32억 위안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 2003년 후진타오 주석 방문을 통해 중국측은 개발협력 범위내 농업과 인프라, 사회분야 개발 목적으로 5억 달러 차관과 60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약속하였다. 이에 더해 2014년 시진핑 주석 몽골 방문 시 양국 정부는 10억 달러의 차관제공 각서를 체결했으나, 2018년 5월 되어서야 차관을 활용할 사업명단이 나왔다.
- 중국정부의 양허성차관은 주로 교통인프라, 주택개발, 도시개발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2014년에 중국정부가 약속한 10억 달러 차관으로 하수도 처리장 공사사업, '게르 구역 재

⁹ '몽골, 중국 정부간 통상경제기술 공동위원회 회의개최' <http://zasag.mn/news/view/20592>

개발사업, '울란바타르 시 고품쓰레기 재처리 시설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반면 무상원조 자금은 주로 교육과 복지시설 공사에 쓰이고 있다. 대표사업으로 장애아동 개발센터, 초중고등학교 건물 등이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매년 100여명의 몽골학생에게 장학금 제공하고 있다.

<표-5> 중국정부의 대몽골 양허성 차관으로 추진된 사업

사업명
투무르테잉 어워 아연 광산 개발사업
서부지역 도로개발사업
자밍우드 지역 인프라개발사업
주택단지, 인프라개발사업
‘자밍차다’ 인근 교량도로건설사업
Yarmag 신교량건설과 구 교량 리모델링사업
철도차량 기지확장 사업
신공항 고속도로공사 사업
신공항 고속도로공사 컨설턴트 사업
바양홍고르-바이드락 교량용 129.4km 도로와
토송첸겔-위라스타이 도로공사(67km) 사업
바양주르흐와 송소고롱간 철광교량 신공사 사업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울란바타르-만달고비 송전망과 설비공사
기본 정보통신망 확장 및 갱신 사업
에르데네트 화력발전소 재보수 사업
울란바타르 시 하수처리장 시설개발 사업

몽골재무부, 몽골정부와 중국정부간 개발협력 현황, <https://mof.gov.mn/article/entry/china-01>

<표-6> 중국정부의 대몽골 원조사업

사업 명
장애아동 발전센터
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1개의 어린이집 공사사업
인공수정으로 마짜라이 곰 번식지원사업
마짜라이 곰 생태지 보호 사업
발달장애 시민을 위한 특수설비의 체육관 공사사업
1008가구의 임시거주 주택개발사업
내륙항 인프라 개발사업

3. 몽골 러시아의 경제협력

가. 몽골 러시아 경제협력의 배경

몽골과 러시아는 1990년 체제전환 후로 한동안 관계가 침체되었다가 2000년 푸틴 대통령 몽골방문을 계기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2008-2009년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 잇따른 몽골방문 과정에서 양국은 몇몇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경험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 교류침체기 (1990-2000년): 1991년 2월 양국은 ‘우호 협력관계에 대한 선언문’에 이어, 1993년 ‘몽골과 러시아간 우호관계,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탈냉전시대 양국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가 내정불안과 경제난을 겪으면서 2000년까지는 경제교류의 폭이 급감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경우 양국 경험의 주요 의제로 구소련 시기 몽골의 대러 채무상환과 재산청산 문제였다면 몽골의 경우, 철도운송규범 표준화와 안정적인 석유공급, 육류수출 등 교역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 교류발전기 (2000년 이후): 2000년 11월에 푸틴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하면서 ‘울란바타르 선언문’, 2006년 ‘모스크바 선언문’ 발표를 통해 신세대 양국간 협력교류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문서들을 채택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푸틴 총리, 2009년 8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잇따라 몽골을 방문하고, 양국 외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정부는 몽골의 교통인프라, 광업분야에 대한 투자협력을 본격화하여, ‘타왕톨고이’ 석탄광산, ‘마르타이’ 우라늄 광산, ‘아스갯’ 은 광산에 대한 투자의사를 적극 제안했다. 더 나아가서는 양국정부는 몽골철도 공동개발을 위한 ‘인프라개발’¹⁰ 등 몇몇 합작기업을 설립하였다. 몽골, 중국, 러시아 삼자간 지역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 8월에 Putin 대통령이 다시 몽골을 방문하고 ‘양국간 무비자 협정’, ‘울란바타르 철도 현대화와 발전전략 동반관계’ 등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한 15가지 문서를 체결하였다.

2016년 4월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 몽골 방문 시 체결된 ‘*몽골, 러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협력 개발 중기 계획*’은 2020년까지 양국협력사업을 정립한 주요 문서이다. 본 계획은 그 동안 양국 고위인사 면담 시에 논의되어 왔던 주요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인프라, 통과운송, 교역, 투자, 인문, 국제사회, 삼자협력 등을 위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2014년 푸틴 대통령 방문 당시 양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몽골횡단철도의 현대화와 전선

¹⁰ 몽골정부와 러시아정부간 결의로 러시아의 ‘러시안 레일웨이즈’사가 50% 몽골국영기업인 ‘몽골철도공사’와 ‘Erdenes MGL’사가 각각 25% 자금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회사설립 목적은 타왕톨고이 석탄개발, 신철도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본 회사 ‘신철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몽골내 주요 철도노선이 1520mm 광궤로 계획하기로 양국정부가 합의를 했다.’

화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세관협력과 통관지점 개발사업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를 100억 달러 도달시키고, 민간인 교류확대를 위해 무비자 협정서도 체결하였다. 양자 또는 몽-중-러 삼국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운송에 대한 운임협정서도 체결하기로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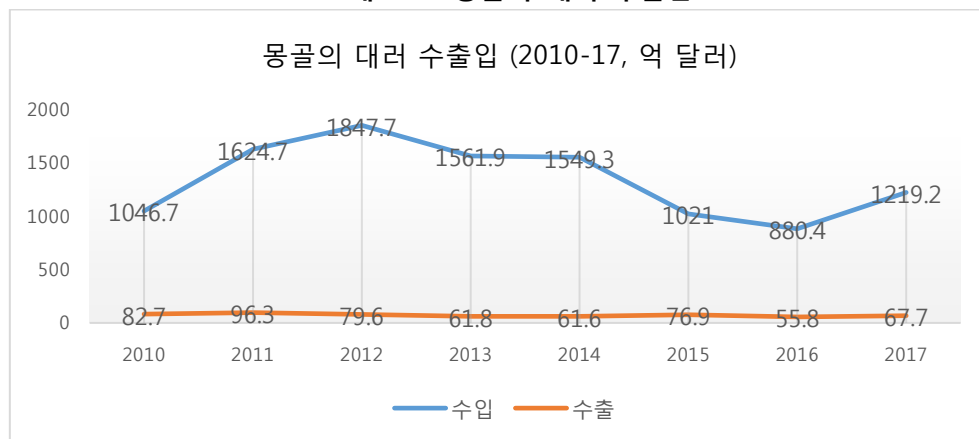
- '무역, 경제, 과학, 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몽골 러시아 정부 공동위원회'가 매2년마다 회의를 하며, 경제협력계획의 집행과 이행 평가하고 있다. 최근 몽골정부가 몽골 생산품에 대한 수입쿼터 철폐와 무관세에 대한 협상개시 제안하고 있다.

나. 몽골 러시아 분야별 경험의 현황

몽골과 러시아간 교통물류, 에너지, 광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교통물류의 경우,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2014년 이후로 3회 몽골방문, 몽골 교통부장관이 매해 러시아를 방문한 만큼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철도교통의 양국간 공동기업인 'UBTZ'와 중앙회랑의 현대화와 통과운송확대가 중점사업이라면, 도로교통의 경우 양국은 '몽-중-러 경제회랑' 프로그램 범위내 도로운송개발에 힘쓰고 있다. 에너지분야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양국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교역현황: 러시아는 몽골에 있어 제2위 주요 교역파트너이다. 2013년 양국간 무역규모는 2012년 18억 달러인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에 10년전 수준인 12억 달러로 회복하였다. 몽골에 있어 러시아와의 경험 의제 중 교역확대가 최대 관심사안이다.

<그래프-3> 몽골의 대러 수출입



자료출처: 몽골 통계청, '몽골의 대외부문 통계', www.1212.mn

- 2017년 말 기준 몽골과 러시아간 무역액은 12.8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하였다. 2012년 양국간 교역규모가 최대치인 19.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몽골의 경기침체와 광산업계 연료소비 감소에 기인하였다. 몽골의 대러 수입액은 2017년말 기준 12억 달러로 전체 수입 중 57 % 차지한다. 몽골

전체 수입 중 대러 수입비중이 지난 30년 동안 50% 이하로 하락한 경우가 없었으며, 몽골에 있어 대외부문 최대과제가 바로 교역구조 시정문제이다. 반면 러시아의 대몽골 수입액은 2017년말 기준 6700만 달러로 몽골 전체수출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래프-1>에서 보여주듯이,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의 대몽골 수출은 규모와 품목 차원에서 일정한 구조를 유지해왔다.

- 몽골의 대러 주요 수입 품목은 디젤유, 휘발유 등 연료, 농기계, 의약품, 식품과 생활용품 등이다. 몽골은 연료소비의 98% 러시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연료 수입금액은 7.39억 달러이다. 몽골 북부 아이막들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매년 500kw/hour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해당지방의 전체 전력 수요 중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반면 러시아의 대몽골 주요 수입품목은 피혁, 육류, 형석 등 광물자원이다. 양국교역간 최대 논쟁거리인 육류의 경우, 지난해 러시아는 몽골로부터 670만 달러에 2600톤을 제품을 수입했다.
- 몽골의 대러 수입이 대러 수출의 20배를 상회하는 만성적자 상태이며, 이는 몽골의 총 무역적자 중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적인 무역구조가 형성되는데 몽골의 수출상품 경쟁력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의 측의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푸틴 대통령 방몽 중 육류수출에 대한 협상이 있었으며, 소고기와 말고기에 수입확대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을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아직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례연구: 몽골의 대러 육류수출

몽골은 구소련 시절 매년 4만 톤 가량의 육류를 러시아에 수출했었다. 현재 연간 60만 톤 몽골정부는 러시아 측에 관세율 인하, 수입쿼터 철폐 그리고 비관세 장벽 제거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몽골육류수출업체들에 의하면 러시아 주요 수입원이 동시베리아 지역이며, 검역과 관련해서 동시베리아 지방위생검역당국 전문가들이 현장점검 후 육류수입 허가를 내준다고 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기구로서 연방위생검역당국이 승인을 하는데 최소 6개월 걸린다는 것이다.

-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몽골간의 자유무역협정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단계에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몽골정부는 공동업무위원회를 구성해 2017-2018년까지 계획을 작성하였다. 2018년 초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내규변경에 따라 러시아수출을 진행하려면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모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항이 생김으로써 몽골의 대러시아 교역확대가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서 체결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현황: 2017년 누적투자액 기준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액은 3.1억 달러이며, 몽골의 12위 투자국가이다. 현재까지 몽골에 투자한 러시아 투자건수는 878개로 중국, 한국 다음으로 많으며, 주로

건설업, 광산업, 금융업 그리고 도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 2017년 누적투자액 기준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액은 3.1억 달러(전체의 투자 중 1.4%)로, 몽골의 12위 투자국가이다.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는 2011 이후로 계속 하락해왔는데, 양국 모두가 경기불황으로 인해 투자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 1990년 이후 2017년까지 러시아로부터 몽골에 878건의 투자가 들어왔으며, 2010년때 이 숫자는 769개, 2014년 830개였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가 거의 늘어나지 못한 것을 보여주며, 몽골 국가개발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이후로 연 평균 10개의 러시아 회사가 몽골투자에 나서고 있다. 몽골의 러시아전문가 남돌징(A. Nyamdoljin)에 의하면, 러시아의 대몽골 투자 하락의 주요 원인은 몽골정부가 2013년부터 최초 투자신고금액을 10만 달러로 올린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¹¹.
- 산업별 투자현황을 보면, 러시아기업들의 대몽골 투자는 주로 광업(70%), 무역업(10%), 건설업(2.3%)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4년 기준 몽골에서 활동 중인 43개의 러시아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보면 10개 회사는 무역, 관업 회사 3곳, 그리고 교육서비스와 관광업을 하는 기업수가 12개로 집계되었다. 러시아 중소기업들의 대몽골 투자가 2005년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양국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합작기업들의 경우에도 상황이 좋지않다. 2014년 러시아정부는 몽골내 주요 합작기업들인 '에르떼네트'와 '몽골로스체베트메트' 매각했으며, 현재 국가투자 합작기업으로는 '울란바타르 철도공사', '도르노드 우란' 등이 있다. 울란바타르 철도사의 경우, 1949년 설립 당시 작성하였던 양국간 합작기업계약을 아직까지 개정하지 못한 관계로 앞으로 본 철도의 추가투자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도르노드 우란' 사의 경우, 러시아정부 요청으로 몽골정부가 당시 캐나다 'Khan Resource' 사가 이미 보유했던 개발권 라이선스를 무리로 압수해 본 회사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결국 몽골정부가 8000만 달러의 벌금을 배상하게 되었고, 합작기업 역시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표-7> 몽골정부와 러시아정부출자 합작기업

합작기업 명	설립연도	운영현황
UBTZ	1949	몽골 50%, 러시아 50%
Erdenet	1978	러시아는 지분 49%를 몽골기업에 매각
Mongolrostsevet	1982	위와 동일
Ded buttsiin hugjil	2009	몽골정부가 지분 50% 러시아에게 매각
Dornod uranium	2009	50%

필자 작성

교통인프라: 몽골 러시아간 교통인프라 협력은 철도, 도로 그리고 교통운송과 내륙항 협력으로 구

¹¹ A. Нямдолжин, 'Орчин үеийн Монгол-Оросын харилцаа: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ууд', *Орчин үеийн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ШУА, 2018, хуудас 360-374.

성되고 있다.

- 울란바타르 철도사 (몽골횡단철도의 소유주)의 경우, 현대화 사업과 통과운송 문제는 고위인사 회담마다 논의될 정도로 중점 이슈이다. 철도인프라분야¹²의 경우 2014년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 당시 양국정부는 “*울란바타르 철도 현대화와 발전전략 동반관계*” 협정서 체결했었다. 본 협정에 따르면 울란바타르 철도를 4개의 루트를 추가로 개발하고, 화물수송 물동량을 연간 1억 톤까지 처리가능 수준으로 복선화와 전선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몽골정부는 2015년 철도 물동량 2280만톤 기준에서 2018년 3400만톤, 2020년 4800만톤, 230년 7600만톤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 2016년 기준 중국과 러시아간 철도화물 물동량은 총 42만 TEU로, 양국정부는 본 수치를 2020년까지 100만 TEU로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현재 중-러간 철도화물의 90%이상이 자바이칼스크 내륙항을 통해 만추리안 횡단 철도로 수송되고 있다. 앞으로 늘어날 초국경 철도물동량 중 10%를 몽골철도가 수송하겠다는 것이 러시아와 몽골간의 논의이다. 2017년 기준 몽골철도공사는 연간 2300만 톤의 화물운송을 수송했으며, 이 중 15%인 320만 톤이 중국과 유럽간 수송되는 통과화물이다. 그러나 몽골철도공사의 ‘소유주인 울란바타르 철도’ 합작기업의 전체 수입 중 20% 이상을 통과수송사업으로 벌어들인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철도 현대화사업은 양국 모두의 희망사항이나, 2.5억 달러 투자재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례연구: 몽골철도

TMGR 소유주인 몽-러 합작기업 UBTZ에 대한 자금투자와 경영혁신은 몽골정부의 중요 관심사이다. TMR 시설낙후로 2.5억 달러 가량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몽골정부와 미국정부 협상을 통해 “밀레니엄 챌린지 어카운트 (Millenium challange account)”에서 TMGR 철도 효율성제고, 기술용량 강화를 위해 1.88억 달러의 자금투자가 가능해졌으나, 러시아측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곧 이어 2008년 양국정부는 ‘Ded buttsiin hugjil’ 합작기업 설립해, 울란바타르철도 현대화와 몽골의 ‘신철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중앙회랑인 TMGR 이외에도 몽골 러시아간 철도협력 사업으로 북부회랑 철도(쿠라기노-키질-아르츠소리-오보트-에르떼네트 노선) 개발사업이 있다. 현재의 러시아 영토내 구간인 경우 투바공화국 키질시에서 몽골 국경지역 아르츠소리까지 미개발 구간이다. 몽골의 경우 국경지역에서 오보트까지 구간은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보트 - 에르떼네트 노선공사는 호주투자 ‘Northern Railways’ 사가 건설+운영+이전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¹² ‘주몽골 러시아 대사 아지저브: 몽골산 석탄을 해양항만으로 운송하는데 러시아 측은 지금도 준비되어 있다(И.К.

Азизов: Монголын нүүрсийг далайн боомт руу тээвэрлэхэд Оросын тал одоо ч бэлэн байна). 출처: <http://www.mongolianminingjournal.com/content/65678.shtml>

몽골정부와 계약을 한 상태이다. 2019년부터 공사착공 예정이며, 공사가 완공될 경우 몽골을 경유해 중국의 서북부와 러시아의 투바공화국을 연계한 철도노선이 생기는 것이다.

- 몽골은 자국을 경유하는 국제교통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통과운임비를 15% 인하하였고, 2017년도에는 화물 환적비를 65.5% 낮추었다. 철도통과운송과 운임과 관련해 몽골정부와 러시아정부는 이미 10년전부터 논의해왔으며, 2018년 6월 양국간 통과운송에 관한 협정서를 최종적으로 체결하였다.
- 에너지 전력망 개발사업: 러시아 국영기업 'Rosseti' 대표는 2017년 5월 몽골총리를 방문해, 초국경 에너지배급망을 개발해 '아시아 슈퍼 그리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¹³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동사는 몽골정부와의 협상 하에 '공동연구팀'을 구성해서 조사 중에 있다.¹⁴
- 수력발전소 개발사업: 몽골정부는 북부 지역 전력공급난 해소를 위해 '에그 (Eg)' (220mw), '슈룬 (Shuren)' (350mw) 등 수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해왔다. 본 수력발전소 개발대상지인 에그 강은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주류 원천지라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몽-중-러 삼국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본 사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것'을 몽골과 중국측에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러시아는 몽골 전력소비의 5-7%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가 전력수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산업: 몽골 러시아간 광업분야 주요 협력분야는 석탄개발과 우라늄개발이다. 석탄개발사업의 경우 타왕톨고이 탄광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몽골내부 정치적 미타결로 인해 미제로 남았다. 우라늄의 경우 러시아가 구소련 시대부터 몽골에서 우라늄개발과 탐사를 해온 경험이 있다. 2000년 푸틴 대통령 방몽을 통해 체결된 '평화목적의 핵에너지개발을 위한 몽골 러시아정부간 협정서' 중 제2항에 의하면, '양국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개발, 원자력 발전소 타당성 조사수행, 설비납품, 전문가양성 등 부문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2008년 양국은 '우라늄개발 협력협정서' 체결을 통해 러시아가 몽골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2018년 초에 러시아 국영기업 'Rosatom'과 몽골의 국영기업 'Monatom' 사가 몽골의 원자력과학기술 센터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농업: 몽골과 러시아간 경험 중 중점 분야는 바로 농업분야이다. 2008년 당시 몽골 바야르 국무총리는 밀재배와 감자재배에 대한 대규모 사업착수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농기계와 농약을 수입하는 정책을 추진했었다. 최근 2017년에 몽골정부는 러시아산 농기계 구입 목적으로 러시아 'VTB 은행'

¹³ 'Russian company starts preparing documents for construction power grid in Mongolia,' source: <http://tass.com/economy/988186>

¹⁴ С уче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https://neftegaz.ru/news/view/168522-S-uchetom-ekonomicheskoy-tselesoobraznosti.-Rossiya-i-Mongoliya-sozdadut-rabochuyu-gruppu-po-postavkam-elektroenergii>

으로부터 10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조건으로 러시아의 농기계 제조사 7개 곳에서 총 530대 기계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축산업분야 또 다른 협력사업은 '가축치료 사업'이 있다. 본 사업이 2014년부터 출범되었는데 사업범위 내에서 러시아산 400만cc 가축치료용 백신주사를 몽골에 공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몽골, 러시아, 중국 삼국이 초국경 형태로 발생하는 가축병 공동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몽·중, 몽·러 경제협력의 비교연구

몽골과 중국, 몽골과 러시아간의 경제협력 행태를 살펴보면 양측간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면이 있다.

가. 교역부문

1989년 사회주의시절 말 몽골 대외무역 중 대러 무역 비중이 78% (수출액 5.33억 달러, 수입액 9.02억 달러)였다면, 대중 교역이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30년 후 현재 중국의 비중이 65%, 러시아가 19%로 자리가 바뀌었다. 지난 30년 동안 몽골과 러시아간 교역구조가 양적으로도(규모) 질적으로도(품목다양성) 정제되어 왔다. 이에 더해 사회주의 시대 형성된 친-러시아 사회문화 풍토로 몽골인의 러시아산 식품과 생활용품 소비가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교역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휘발유 등 연료와 농기계 등에 대한 몽골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몽골 러시아간 무역액은 증가하지는 않지만 감소하지 않을 추세이다. 대러 최대 수입상품인 연료의 경우, 몽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유공장 개발사업'을 착수해 2019년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몽·중 교역관계는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몽골의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몽골은 중국에 광물자원과 석탄 등 원재료 품목에 더해 육류와 곡류, 작물, 유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에서 몽골제조업체들의 중국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와 중국 농산품의 몽골수출을 지원하는 '그린 통로' 등 사업으로 양국 교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몽골과의 교역협력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양국간 교역발전은 탄력을 못 받고 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몽골과의 교역이 전체 무역 중 극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수준에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몽·중, 몽·러 교역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각국의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권한 부여의 문제이다.

나. 투자부문

중국의 대몽골 투자는 2017년 제외하고 20여년간 1위를 차지해온 반면 러시아 대몽골 투자는 10위권 밖에 남았다. 지난 30여년 동안 러시아 기업들은 몽골의 에너지, 교통인프라, 광업, 건설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의사를 밝혀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투자사례는 없다. 러시아 정상들은 자국 기업 중 ROSSETI 에너지인프라, ROSNEFTI 정유회사, ROSATOM 광업개발 등 국경기업들의 대몽골 투자

지원을 적극 요청해왔다. 그러나 실질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DORNOD URAN', 'DED BUTTSIIN HUGJIL' 등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들마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민간주도가 아닌 국가주도의 사업경영방식이 오래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기준 주몽골 러시아 대사관에 등록되어 있는 러시아 투자회사들을 보면 주로 교육, 관광 등 서비스 분야, 그리고 무역업, 건설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투자기업들은 교육, 의료서비스, 건설업 등 분야에 오히려 경쟁력을 갖고 있어 몽골시장진출과 정착이 빠른 편이다.

중국 대몽골 투자 기업들의 경우 광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자국 양허성 차관과 무산원조로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도로,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사업과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인 'CHALCO'사와 몽골의 '에르떼네스 타왕톨고이 사' 사이 생긴 3.5억 달러 채무상환 문제가 6년을 걸쳐 몽골경제에 대한 큰 부담으로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국영기업간 거래에는 큰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업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투자는 아직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산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수가 180개에 이른다. 이들 중 차이리트 미네랄 (Tsairt mineral), 페트로 다이칭 탐삭 (Daiqin Tamsag) 등 민간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합작회사로 이미 몽골시장에 잘 알려졌고, 신뢰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도 있다.

참고자료

[몽골어 자료]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Яам,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х
өтөлбөр (몽골대외경제교류프로그램)', 출처: http://www.mfa.gov.mn/?page_id=32253

Монголбанк,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позиц 2015 (몽골중앙은행 외국인직접투자동향 2015)' 출처: www.mongolbank.mn

Монгол улсын Сангийн яам,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Хятад Ард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몽골정부와 중국정부간 개발협력 현황),"
출처: <https://mof.gov.mn/article/entry/china-01>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НХА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удалдаа, эдийн засаг,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ик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Комиссын
XV хуралдаан болов' 출처: <http://zasag.mn/news/view/20592>

‘Тавантолгой-Гашуунсухайтын чиглэлийн хилийн холболтын цэгийг яаралтай шийдэх ёстой’ **출**
 처: <http://www.mongolianminingjournal.com/content/65763.shtml>

А. Нямдолжин (2015),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орчны өөрчлөлт," *Орчин үеийн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ШУА, 2018, хуудас 125-141.

Д. Шүрхүү, Нямдолжи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орчны өөрчлөлт” Улаанбаатар, 2015, хуудас 10-27.

И. К. Азизов: Монголын нүүрсийг далайн боомт руу тээвэрлэхэд Оросын тал одоо ч бэлэн байна' 출처: <http://www.mongolianminingjournal.com/content/65678.shtml>

[기타 언어 자료]

'China, Mongolia to start joint feasibility study for FTA,' source: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7-08/01/content_30320051.htm

'Chinese investors bid for Khuut-Bichigt project,' source: <http://mongolia.gogo.mn/r/161037>

'Russian company starts preparing documents for construction power grid in Mongolia,' source:
<http://tass.com/economy/988186>

'С уче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й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source: <https://neftegaz.ru/news/view/168522>

中国—蒙古自贸协定联合可研第一次会议成功举行,

출처: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9/20180902791379.shtml>

中蒙启动首个农产品快速通关绿色通道

출처: <http://tjtb.mofcom.gov.cn/article/y/aa/201809/20180902790137.shtml>